

2018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중심적인 이상

메시지 5

우리의 마음 안에 빛 비추심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성경: 고후 4:4, 6-7, 3:18, 마 16:28, 17:2, 계 22:4 상, 5 하, 21:23

- I.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고후 4:7).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빛 비추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보배, 즉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끌어 온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 II.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고후 4:4.
  - A.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밝게 하고 광채를 발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 히 1:3, 고후 4:6.
  - 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며,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신다 — 고후 1:3, 엡 1:3, 6, 12, 14.
- III.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고후 4:6.
  - A.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밝히는 것을 가져 온다 — 고후 4:4, 6.
  - B.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인격이며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4:4, 6, 마 17:2.
  - C.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행 7:2, 히 1:3.
  - D.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더욱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서 비추고 그 후에는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비추신다 — 요 1:18, 마 5:16, 빌 2:15.
- IV.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고후 4:7.
  - A.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밝힘을 통해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 의해 계시되신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제,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다 — 고후 4:6-7.

- B.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추심, 즉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 안으로 보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이끌어 오며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 고후 4:4, 6-7, 골 2:9, 3:4, 11, 고전 15:45 하.
1. 이 고귀한 보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신성한 공급의 근원이다 — 빌 4:13, 고후 13:5, 4:7.
  2. 이 고귀한 보배는 질그릇들을 고귀한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든다. 이 능력의 탁월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고후 3:6, 1:9, 4:7.
- V.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3:18.
- A.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B.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신다 — 눅 24:46, 히 2:9, 고후 3:18, 롬 8:29.
  - C. 이것은 생명과 부활 안에서 지속되는 과정이다 — 고후 3:18.
- VI.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 사람의 아들이 ...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웃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 마 16:28, 17:2.
- A.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변형, 즉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 마 17:2.
    1. 16 장 28 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17 장 2 절에서 그분이 산 위에서 변형되심에 의해 성취되었다.
    2. 주 예수님의 변형, 빛을 비추심은 그분이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다.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는 왕국이 오는 것도 있다 — 마 16:28-17:13, 눅 9:27-36.
  - B.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 비춤이다. 그분의 빛 비춤 아래 있는 것은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 계 22:4-5.
  - C.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변형되실 때 그 변형은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이 된다 — 골 1:12-13.
- VII.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 22:4 상, 5 하.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 계 22:4 상.
  - B. 하나님 자신이 어린양 안에서 우리 위에 비추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밝히심 아래서 살 것이다 — 계 22:5 하, 21:23.